

제목: "꿀보다 더 달았던 이유는?"

말씀: 시편 19장 1-14절

오늘 시편의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한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꿀보다 더 단 것으로 깨닫고 먹고 입고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 1) 완전하여 소성케 합니다. (7절)
- 2) 확실하여 지혜롭게 합니다. (7절)
- 3) 정직하여 기쁘게 합니다. (8절)
- 4) 순결하여 밝게 합니다. (8절)
- 5) 정결하여 영원에 이르게 합니다. (9절)
- 6) 진실하여 의롭게 합니다. (9절)

우리교회가 섬기는 선교지	
백남일 선교사	북아프리카, 프랑스 이슬람권 사역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교회개척 및 목회자 사역
깊은 뿌리 나무 (Deep Roots Church)	한인 2세를 중심으로 개척 된 다민족 교회(뉴저지)
지난 주 헌금	
십일조	
주일	
감사	
합계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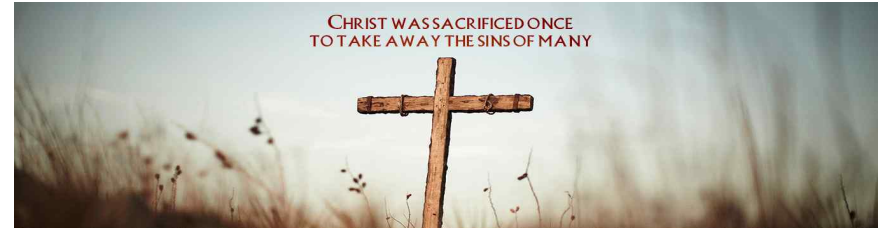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Let us Give a Brand New Heart to God" (2 Corinthians 5: 17)



주일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12시 30분
12: 30 PM

인도: 김성민 목사
President: Rev. Jason Kim

-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Call to Worship President
- * 찬양 다같이
Praise All Together
-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다같이
Prayer All Together
- 성경말씀 시편 19장 1-14절 설교자
Scripture Reading Psalm 19: 1-14 구약 815 페이지 President
- 말씀 "꿀보다 더 달았던 이유는?" 김성민 목사
Message Sweeter Than the Sweetest Honey Rev. Kim
- 성찬식 다같이
Communion All Together
- 헌금/기도 다같이
Offering and Prayer All Together
- 광고/환영 인도자
Announcement President
- * 찬양/헌신기도 주님 내가 여기있사오니 다같이
Praise and Prayer Lord Here I am All Together
- * 축도 설교자
Benediction Rev. Kim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예배 장소) 3228 SW Sunset Blvd Portland OR 97239 (503)332-1941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

www.newchurchoregon.com newchurchoregon@gmail.com

담임: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담임목사 컬럼 (산불)

몇 년 전 새벽기도회 후 자동차로 걸어가는데 멀리 산에서 많은 연기가 났습니다. 산불이 난 것입니다. 다행히 사람들이 사는 곳과는 거리가 있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들으니 멀리서 보는 것과 상황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어 사는 곳에서 멀지 않다는 소식입니다. 급히 그곳 가까이에서 사시는 교회 성도님께 연락을 했더니 그곳과는 거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다행이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은 많은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고 아직 완전히 진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들에게 오래 전부터 유명한 재봉틀 회사의 주인이 살던 명소가 그 산불 때문에 허물어졌다는 소식과 자신의 집과 자동차가 한 순간에 잿더미가 된 것을 보면서 울고 있는 아저씨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화재가 시작되었을까 궁금했습니다. 이 지역에 찾아 온 100년 만에 가뭄이기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을 뒤엎고 3명의 20대 청년들이 들어가자 말았어야 할 곳에 들어가서 산불을 냈다는 이야기입니다. 3명의 친구들이 산에 올라가 야영을 하면서 불을 가지고 놀았다고 합니다. 종이를 뭉쳐서 불을 붙이고 그것을 가지고 발로 차면서 놀다가 결국에는 큰 산불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메마른 산에서 불을 가지고 놀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들의 편에서 이야기하자면 자신들도 그렇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고 행동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빌립보서 3장 8절)을 통하여 불을 품고 숲 가운데로 뛰어다니는 삶을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늘 옛사람과 죄악된 생각들을 볼 때마다 자신을 쳐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며 살았던 사도바울과 같이 살라고 하십니다. 불을 가지고 놀면서 자신은 산불과는 관계가 없다는 착각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악한 생각과 온전하지 않은 행동들 그리고 그 생각 가운데 나오는 말들이 나에게 산불로 연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늘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배설물로 여길 것들을 당연히 그렇게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로 충성스럽게 걸어가는 성도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천국 시민의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천국에 비자를 받아 놓은 사람의 생활이 얼마나 기뻐야 하겠습니까? 훨훨 날아갈 것 같은 마음에서 나오는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불을 보면서 혹시 나는 믿음생활이 모두 다 성숙한 것과 같은 생각에 있지는 않은지 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먼저가시는 삶, 말씀에 순종하여 그어주신 길로 다니는 삶, 명령하신 부르심에 복종하며 사는 여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교회소식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마음껏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2. 기도의 삶

이번 주 기도제목

- 1) 성도들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 2) 더욱 서로 사랑하여 한마음 되는 교회 되도록
- 3) 새로운 등록한 성도들이 믿음생활과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 4) 교육부 사역이 시작되도록
- 5) 건강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하여 (김예식 성도의 회복을 위하여)
- 6) 선교지를 도우며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 7) 모두 Covid-19을 통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 8) 교회 비전에 맞는 찬양 사역자를 위하여
- 9) 우리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 교회가 세워지도록
- 10) St. Andrew's 교회 사역을 위하여

(5월 30일 모든 교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Deep Roots Church: 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백남일 선교사: 프랑스 Covid-19 에서의 온 가족 안전 특별히 사모님의 건강을 위하여

Silk Wave 선교회: 터키 개신교 목회자들을 위하여

3. 새벽 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6시에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5월 중에는 새벽기도회 후에 친교가 없습니다.

4. 8월 생명의 삶

생명의 삶 8월호를 받아 가시고 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5. 교회 웹 사이트 주소와 이 메일 주소

웹 페이지 주소: www.newchurchoregon.com

이 메일 주소: newchurchoregon@gmail.com